



5면

산학공동 연구개발
우수 전문인력 양성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음 9월 26일) 제26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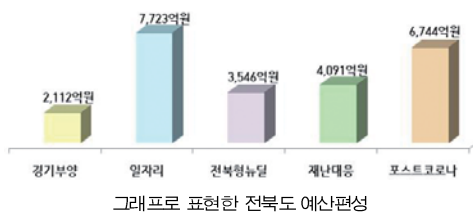
전주매일

道, 사상 첫 8조원 규모 예산편성

전년대비 11.8%증가한 8조7462억원 규모 제출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부양 총력 강한 의지 담겨
전북형 뉴딜 닷 올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 박차

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조7,46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오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원 시대를 맞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나,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안정 도모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73억원(14.8%) 증가한 7조 1,051억원, 특별회계는 2,567억원(41.0%) 증가한 8,824억원, 기금은 2,540억원(25.1% ↓) 감소한 7,587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증가율 14.8%는 역대 최고로, 2021년 정부예산 증가율(8.5%)보다 6.3%p가 높다.
중점편성 내용은 소비활성화, 소상공

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112억원, 일자리·청년 사업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에 6,744억원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 5,896억원(36.5%), 농림해양수산 1조 1,995억원(16.9%), 일반공공행정 4,527억원(6.4%) 순으로 높았다.
전북도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원,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원 등이 전년대비 각각 감소 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금년도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내년 정부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매칭도 급증해 재원이 부족한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세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 전략적 지원배분을 통해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활용, 총 1,480억원의 부족재원을 마련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113억원이 증가한 8,789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재민금세계잡버리, 이태미스타즈 조직위 출범에 따른 국제행사 준비, 내년부터 어가당 60만원씩 지원되는 '어업인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등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지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11월 28일)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1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사항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내년도 예산안 3조4249억원 올해보다 1102억원 줄었다

전북교육청, 도의회 제출... 학교 방역비 등 신규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학교 방역비 지원, 채식 식단 부식비 지원 등 학생 건강 및 안전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반영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사업 118억원 등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02억원(△3.1%) 감소한 3조4,249억원으로,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우선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대비한 예산 반영·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속 추진,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지난해 보다 1,441억원(△4.6%) 감소한 2조 9,982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145억원(4.1%) 증가한 3,675억원, 자체수입(6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200억원 증가)은 194억원(48.6%) 증가한 582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8,431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03억원, ▲교육복지지원 3,42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18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93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88억원, ▲평생직업교육 73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399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0.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2조 2,134억원(전체예산의 64.7%) 편성,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42억 원을 증액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2,068억원과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178억원(유치원 520억, 어린이집 650억), 무상급식 지원에 1,287억원을 반영했다.
학교신설비는 2021~2023년도 개원(교) 예정인 전주새마을유치원 외 8개원

(교)에 668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23억 원, 전주만성초 외 3개교의 학급증설에 42억원 등 모두 731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비) 지원에 22억원,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각종 학교 노트북 구입을 위한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에 62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8억원을 반영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학교 체육시설 설치,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184억원,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조성, 청소년 놀이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성화고 환경개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2,75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어촌 교육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스포츠클럽 위탁 운영 사업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 지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에 971억 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 하락 등으로 내국세 규모가 축소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감염병 예방, 교육여건 개선, 미래 교육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출되는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77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 행사
하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농업인의 날(11월 11일) 하루 앞둔 10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직원들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전한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한반도 종전선언 '공감'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는 10일 전북지역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제19기 전북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전쟁없는 한반도! 우리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별 실천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한 법정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각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다.
전북지역회의에서 현정분부를 설치하고, 전북 14개 시·군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 격려말씀 정세현 수석부 의장 축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축사, 민주평통 제19기 업무 보고 및 지역회의별 활동 보고, 정책 설명, 현장형 정책건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정책건의는 '종전선언을 위한 여성위원회의 실천방안 마련(전주시 이보순 자문위원), '시군협의회 대북인적 교류 추진(완주군 이정천 자문위원), '청소년들의 마음에 평화를 담다(부안군 김옥태 자문위원)'라는 주제로 제안했다. 국내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의해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17개 시·도 및 이북도 지역부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남원
남원예술

남원시립김정중미술관
광한루원
춘향제